

## 아직도 여전한 중복출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는 행복하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법 대신에 인간은 윤리라는 것을 알고 또 그에 따른 행동이 올바르게 인식되었을 때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 '복된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 사는 사회는 질서라는 것이 있다. 질서는 법적인 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인 모두 지켜야 할 덕목이다.

최근 다이호우잉의 작품들을 여러 출판사에서 중복출판함으로써 사람들의 입에서 "아니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눈초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물론 중국이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이호우잉과 출판계약을 맺을 의무는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말이 작가와 작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덩달아 망각되어도 좋다는 뜻은 될 수 없을 듯하다. 출판사는 성심성의껏 작가의 창작활동에 감사해야 할 예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창작품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이 하나의 질서인 것이다. 이러한 예의와 질서가 무시됐을 때 출판업계는 이 전투구의 혼돈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어떤 출판사도 자신들이 다음 작품으로 무엇을 만들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내 정보유출이며 타출판사로부터 '역공작'을 당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출판사의 하는 일이 007영화에나 나오는 첩보전쟁도 아니고 보면 정말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비단 자신의 출판사 제작진이 심사숙고한 기획안이지만 빈 구멍이 있는 것이고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장이 마련 돼야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다. 백지장도 둘이 들면 가볍다고 하지 않던가...

중복출판은 또 출판 당사자들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은 독자를 나눠야 하는 것이 중복출판이고 보면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출판을 '노다지'에 비유한다. 멋진놈 하나로 멋지게 승부한다는 꿈이 출판계에는 엄연히 존재한다. 물론 시장은리대로라면 정말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줄을 알지만 적어도 출판에 뛰어들었다면 이만한 포부는 가져야 참으로 멋진 출판인이 아닌가. 남 열심히 살려는데 행운을 가로챌 생각 이전에 자신의 머리로 만들어낸 책에 애정을 갖고 덤벼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성수 기자

## 재미있는 책이야기

뛰어난 상상력과 영국의 전통적 경험주의 사관에 투철한 역사가로 명저 「歷史란 무엇인가」로 너무나 잘 알려진 E.H 카가 쓴 전기 「도스토예프스키」(김병익·권영빈 옮김, 기린원)는 격렬한 삶을 살았던 러시아 대문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세밀한 자료분석과 비판을 통해 드러낸 저서로 손꼽힌다. 역사학자로 특히 소련사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카의 이 전기는, 도스토예프스키 평정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전문적인 서술형식을 취하지 않아 일반독자들에게도 쉽게 읽힐 만한 책. 학자로서의 엄정함과 꼼꼼함에 의해 방대한 자료가 적절히 엮여져 있는 이 책은 전기라기보다는 한편의 소설처럼 읽는 재미 또한 뛰어나며, 그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삶과 작품의 연관성을 추적한 부분에는 그의 독서경향 등 책이야기가 많아, 여기에 인용 소개한다.

약 2년 뒤에 씌어진 편지에서 아폴론 마이크로프에게 말하듯 그가 감옥을 나올 때는 '위대한 결정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세미팔라틴스크에서 쓴 편지들 속에는 그가 구상중인 위대한 소설에 대한 약간의 언급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씌어졌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게다가 그것이 「죄와 벌」의 최초의 초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당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사

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거의 없다. 그가 미하일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했던 책들 속에는 「순수이성비판」, 헤겔의 「철학사」, 佛譯된 회담 로마 史家, 근대 프랑스의 역사가, 경제학자들,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저작, 코란, 물리학교과서, 독일어사전 등이 있다. 이렇게 광범한 리스트로서는 아무런 암시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이 책을 받고서 모두 읽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시베리아생활과 명백히 관계 있는 세계의 작품, 「죽음의 집의 기록」, 「백부의 꿈」, 「스테판치코보 마을」 등은 그의 전작품 가운데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문제성이 적은 작품들이다. 「죄와 벌」로 시작되는 위대한 연작의 원동력이 되는 선악의 제문제에 대해 그가 많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러한 관심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죽음의 집의 기록」의 萌芽는, 페테스부르크의 친구들을 위하여 세미팔라틴스크에서 쓰기 시작한 메모들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출판할 뜻이 전혀 없었다. 현존하는 기록은 그가 러시아로 돌아온 뒤에 구성된 것이다. 처음에 써놓은 메모가 어느 정도까지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추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다형스럽게

도, 검열제도가 정치적 추방자의 저작출판에 대한 금령을 해제한 것은 1857년이 되어서였다. 그해 8월 미하일은 1849년 감옥에서 쓴 「작은 영웅」의 출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예프스키는 이 단편에 대해 현금으로 백루블리를 지불했다. 작가는 자신은 은혜롭게 생각지 않은채 불성실한 태도로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것은 매우 관대한 행동이었다. 마리아 드미트리예프나의 결혼은, 구혼시절의 애타는 심정으로 부터의 해방이긴 했지만 동시에 그의 경제적 곤란을 가중시켰다. 그는 두개의 단편 「백부님의 꿈」과 「스테판치코보 마을」의 집필에 착수했는데 이들 작품은 그를 위한 미하일의 여러 교섭을 거쳐 전혀 다른 잡지에 게재되었다.(중략)

「백부님의 꿈」과 「스테판치코보 마을」은 그의 초기작품과 똑같이 고골리의 어휘와 매너리즘에 젖어 있다. 페테스부르크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그는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정신과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단서가 되지는 않는다. 이 시베리아 이야기에 작용한 새로운 영향력은 디킨즈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 작가의 소설은 대부분이 원작이 나온 수년 뒤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 간접적이

긴 하지만, 의문의 여지가 전해지는 바이지만, 도스토예프스키가 그의 수용소시절에 읽었다는 유일한 책은 「피크윅 페이퍼즈」와 「데이빗 커퍼필드」였다. 게다가 1857년의 편지에 이따금 나오는 귀절에서 디킨즈가 이 시기 그에게 있어 친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뒤 쓴 최초의 장편 「학대받는 사람들」 중의 넬리는 「骨董品商」(1841년, 디킨즈)의 몇 페이지로부터 직접 가져왔다는 사실은 비평가들도 인정해 왔다. 그래포마 포미치가 유리아 힙(「데이빗 커퍼필드」의 주인공)이나 미스터 펙스니프(「마틴 체츠크」의 등장인물) 등의 정신적 후예임은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명쾌한, 멜로드라마적인 등장인물 분석을 캐리커처로 대체하는 방법, 약한에 의한 육체적 징계, 갑작스런 변화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등, 지금껏 또는 이 뒤의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전혀 볼 수 없는 이 모든 요소들은 모두 디킨즈의 전통을 따른 것이었다. 「스테판치코보 마을」이 실패작이라면 그 까닭은 도스토예프스키에게는 맞지 않는 유머 탓이거나 또는 이 소설 속에서 「백부님의 꿈」에서도 어느정도 그렇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천재의 영향을 받고 그 방법으로 쓴 탓에 있다.

# 출판저널

통권 제113호 / 1992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收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浩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潤吳
宋相庸	申福龍	慎慶燮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瑛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瑛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東
韓相慶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인근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일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